

장성군, 장성사랑상품권 연중 할인... 가계 부담 ↓

10% 1인 월 50만원 한도 군민 1명 연 60만원 혜택

장성군이 지역화폐 장성사랑상품권 10% 할인을 연중 지속키로 결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가계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30일 장성군에 따르면 지역화폐 국비

지원 삭감에도 올해 상품권 발행량을 50억원 늘려 350억원까지 확대키로 결정했다.
당초 1~2월, 9~10월에만 10% 할인을 적용하고 평상시에는 6% 할인만 이어갈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근 국비 지원이 늘어남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 상시 10% 할인 혜택을

지속키로 운영 방침을 변경했다.
장성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가맹점 1700여곳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다.
장성지역 농협·신협·새마을금고에서 1인당 월 50만원까지 구입 가능하다.
연중 10% 할인 적용에 따른 군민 1명당 연간 최대 혜택은 60만원이다. 단 법

인과 단체는 할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규정이 완화되는 등 일상 회복이 되지만 지역경제는 여전히 얼어붙은 상황"이라며 "상품권 10% 연중 할인 결정이 민생경기 부양과 소상공인 경영난 극복에 힘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장성=유병현 기자

평생학습 강사 공개모집 영광군, 2월14일까지

영광군은 유능하고 전문지식이 풍부한 강사를 발굴하고 효율적 연계를 위한 강사은행 운영을 위해 평생학습 강사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오는 2월14일까지며 기초문화, 직업능력, 문화예술 등 총 6개 분야로 해당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 강의 경험이 있는 자 등이다. 등록된 강사는 평생교육 강좌 우선 배정의 기회를 제공하며 합격자는 서류심사를 통해 선발할 예정이다.

영광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제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방문 또는 우편 접수를 하면 되고 인구교육정책과(061-350-4705)로 문의하면 된다.

영광=김도윤 기자

장애인지역사회자립주택 첫 입주 화순군, 입소대상자 발굴 앞장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30일 장애인 지역사회자립지원 1호 대상자가 자립주택에 입주해 독립생활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해 3월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돼 지자체 주도형으로 화순군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을 통해 1명의 장애인이 지역사회로 전환해 장애인 자립중심 서비스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화순군은 거주시설 및 입소대기 장애인들의 자립을 위해 화순군 지역 내 민간 임대주택을 확보했으며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구, 가전물품 등을 지원했다.

화순=김선종 기자

찾아가는 구강보건교육 진행 구례군, 32곳 경로당 대상

구례군이 32개소 경로당을 선정해 찾아가는 치매검진 서비스 사업과 연계한 구강보건교육 및 틀니 살균세척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30일 구례군보건의료원에 따르면 치매검진 서비스를 운영하는 경로당을 방문해 구강보건 전문 인력 지도하에 노년기 구강질환 예방 및 관리법, 올바른 칫솔질 방법, 틀니 사용 및 관리법 등을 교육 중이다.

정기적인 구강검진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에게 간단한 구강검진과 상담을 진행 중이며 틀니를 착용하고 계신 어르신들에 한해서 이동식 틀니 살균 세척기를 이용하여 03(오존수) 살균세척 서비스를 제공해 호응을 얻고 있다.

김형진 구례군보건의료원장은 "치매가 진행된 상태에서는 치과치료에 어려움이 수반되기 때문에, 예방과 관리가 중요하다"며 "치매관리사업과 연계하여 인식개선 및 구강관리 교육을 활발히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구례=김상현 기자



구례군이 32개소 경로당을 선정해 찾아가는 치매검진 서비스 사업과 연계한 구강보건교육 및 틀니 살균세척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구례군 제공

쌀가루 생산 사업 신청자 모집 곡성군, 지역 자립모델 육성

곡성군(이상철 군수)은 다음달 6일까지 쌀가루 지역자립형 생산소비 모델육성 신기술 시범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군은 분질미를 활용한 쌀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해 9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대상자에는 제분시설 등 쌀가루 생산 기반을 지원하고 쌀 가공품 개발을 통해 지역 자립모델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분질미(바로미2)는 농촌진흥청에서 가공용으로 개발된 쌀 종류다. 일반 쌀과 달리 전분 구조가 밀처럼 둥글고 성글게 배열돼 있어 가공에 유리하다. 늦은 모내기 재배에 특화된 밀 등 동계작물과 이모작이 가능해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다.

군은 다른 지역과 차별화를 위해 쌀가루 품종을 친환경 유기재배로 농사를 짓는다. 분질미 재배단지화 연계해 계약재배를 통해 친환경 원료육을 확보해 도정을 한 쌀과 쌀가루로 만들어 전국의 쌀 빵과 제과업체 등에 유통하고 있다.

곡성군 관계자는 "쌀가루 수요가 증가하고 쌀가루의 가공품 기술 개발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농업진흥청, 농업기술원의 지원을 받아 바로미2배의 유기재배 매뉴얼을 정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밀가루 200만 톤 중 쌀가루로 20만 톤까지 대체할 계획이다.

2026년까지 분질미 재배 전문단지를 늘려 4만2100ha로 확대할 방침이다. 곡성군은 올해 가루쌀 생산단지 지정 70ha 면적이 확정됐다.
곡성=김대영 기자

담양군, 2022년 하반기 재정집행 우수기관 선정

목표액 대비 3.33% 초과 달성

담양군(군수 이병노)은 최근 전남도에서 실시한 2022년 하반기 지방재정 신속 집행 최종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지난해 하반기 전 직원이 함께 적극 재정집행을 추진한 결과 대상액 80.03%를

집행, 당초 목표 집행률(76.70%) 대비 3.33% 초과 달성했다.

군은 신속한 집행을 위해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적극집행 추진단을 구성, 정기·수시 집행 보고회를 개최하고 대규모 사업의 주기적인 관리와 사업별 집행 부진사유를 점검하는 등 행정력을 총동원했다. 내수경기 진작에 영향을 미치는 소

비·투자부문에서 3·4분기 목표액 합계 대비 21% 초과달성하는 등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담양군 관계자는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반기에도 계획적인 예산 집행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담양=이영수 기자

장성군 '귀농귀촌 촉진' 동네작가 모집... 내달 3일 마감

15세 이상 장성군민 누구나 참여

장성군이 '귀농귀촌'을 촉진 시켜줄 동네작가를 오는 2월3일까지 모집한다.

30일 장성군에 따르면 '귀농귀촌 동네작가'는 마을 주민을 동네작가로 선정해 정기적으로 귀농귀촌 콘텐츠를 만드는 사업으로 마을 이야기부터 농촌 생활, 영농 현장에 이르기까지 지역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게 된다.

귀농과 농업 전반에 관한 각종 지원정

책, 성공 사례 등 귀농귀촌 준비에 도움이 되는 알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이다.

작가들이 생산한 콘텐츠는 사진·글·동영상·카드뉴스로 제작해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장성군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누리집과 블로그, 유튜브에 게재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콘텐츠에는 소정의 원고료도 지급한다.

15세 이상 장성군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귀농귀촌 예정자도 신청

할 수 있다.
단, 현재 장성군 SNS 서포터즈 등 유사한 활동을 하고 있거나 관련 사업을 운영 중인 사람은 참여할 수 없다.

신청 방법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장성군청 누리집 고시·공고를 확인하면 된다.

장성군은 2월 중 선정 결과를 발표하고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작가들의 귀농귀촌 콘텐츠를 누리집, 블로그 등에 게시할 예정이다.
장성=유병현 기자

곡성토란도란,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지정

토란 마케팅 브랜드화 박차

곡성군(군수 이상철)은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에 '곡성토란'이 최종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곡성토란도란'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은 2018년에 '곡성멜론'이 선정된 이후 5년 만에 이룬 성과다.

이번 '곡성토란도란' 농촌융복합산업지구 조성사업은 2026년까지 30억원이

투입된다. 1~3차 토란 자원의 융복합화를 위한 곡성토란 농촌융복합센터 구축, 토란 신제품 개발, 마케팅과 브랜드 강화, 관광 인프라 구축을 통해 부가가치를 극대화시킬 방침이다.

청년농업인 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상품개발 및 체험관광 프로그램 아이템 경연대회를 추진한다. 귀농귀촌인과 청년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향후 토란산업의 리더로 육성할 계획이다.

곡성군 관계자는 "곡성토란도란 농촌융복합산업지구조성사업을 통해 곡성토란의 명성을 알리는 기회가 됐다. 맛있는 토란 메가 곡성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곡성군은 2015년부터 향토산업 육성사업인 곡성토란 웰빙식품 명품화 사업을 추진하며 음식과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2019년 9월 토란 작목이 전국 최초 지리적 표시제 제108호에 등록돼 곡성 토란의 역사성과 차별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곡성=김대영 기자

디지털 농업정보 수집 본격화 전남농업기술원



전남도농업기술원(원장 박흥재)은 전남 시설하우스 및 노지작물 13개 작목 90농가를 대상으로 재배환경·생육·경영정보 등 디지털 농업정보 제공에 필요한 데이터 수집에 나섰다

30일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노지작물(양파·밀 등)의 기상·토양 환경을 실시간으로 수집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병해충 및 생육 저해요인을 진단함으로써 수확량 예측 모델의 정확도를 향상시키고 나아가 노지스마트팜에 필요한 자동관수장치 개발 보급에 나설 계획이다.

도농업기술원은 지금까지 △빅데이터 수치를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는 시각화 프로그램 개발(특허출원) △AI를 이용한 딸기 무게 측정 장치 및 방법(특허출원 및 기술이전) △시설·노지재소 빅데이터 분석 결과 보고서 발간 및 데이터 기반 컨설팅 등을 추진했다.

전남농업기술원 김도익 자원경영과장은 "농업 빅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 인프라 구축사업을 통해 디지털 농업정보 연계 기상, 생육 및 병해충 등 도움을 통해 전남 농업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관재 기자